

12 기획-후마니타스 우수강의 ② 김석희 교수 ‘국화와 칼’



일본을 응시하는 일은 우리의 미움이 정당하면 정당한 대로, 과하면 과한 대로, 우리 사회의 내면을 응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일본을 공부하는 것?… 서로 닮았기 때문
일본으로 응시해보는 우리의 근대문화



김 석 희

연구교수 · 국제지역연구원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신문이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기획하는 ‘후마니타스 우수강의’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 중 우수강의로 선정된 강의 교수자의 기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양 강의의 지침서를 제공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강의평가를 기준으로 우리신문이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며, 국제캠퍼스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선정 우수강의’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국제캠퍼스는 직전 학기 강의평가 점수와 수강생들이 작성한 주관식 답변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교과영역별로 후마니타스칼리지 우수강의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일본에 대한 이미지만큼 국민 대다수의 공

감대가 형성된 주제도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본은 공분의 대상이며 악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일본을 이해해야 한다면 그것은 왜일까? 강의를 시작한 이래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왜 일본에 대해 공부하는가?’를 물었는데, 10년 전까지 그 대답은 거의 한결같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일본을 공부한다는 대답이 나온다.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일본인 친구가 있어서, 여행 가서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등 나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진보라고 느낀다. 어떤 이유에서건 일본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이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책이 루스 베네딕트(1887-1948)의 『국화와 칼』인 것 같다.

루스 베네딕트는 제2차대전 중 미국 전시 정보국의 의뢰를 받고 『국화와 칼』을 집필했는데, 이후에 나온 일본인론의 원류격이 됐다. 일본인의 행동 및 문화를 분석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독특한 사고와 기질을 해명하고, 일본인 특유의

복잡한 성격과 특징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국화의 아름다움과 칼의 살벌함’으로 상징되는 일본 문화의 틀을 파헤치며 그 본질을 비판적으로 깊이 통찰한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책이다.

루스 베네딕트의 또 다른 저서 『문화의 패턴』이나 『종족』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네딕트는 문화를 몇 개의 패턴으로 요약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관점으로는 개개인의 개성과 하나이지 않은 전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한 『국화와 칼』은 전쟁 중에 쓰인 만큼 현장 조사 없이 문헌조사와 인터뷰만을 토대로 집필됐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러한 크고 작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찰력에 빛나는 이 저서는 여전히 일본문화론의 고전으로 손꼽힌다.

『국화와 칼』은 크게 4파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집필 배경으로 1장과 2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 책의 제1장은 ‘연구과제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경위로 미국이 일본인론을 쓰게 됐는가로 시작한다. 제2장은 1장의 연속선

상에 있는 과제로 ‘전쟁 중의 일본인’에 대한 관찰이다. 가미카제 특공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본인들이 일단 포로가 되면 180도 바뀌어 미국에 협력하는 현상 등에 대해 자세히 쓰고 있다. 그때까지의 서구 전쟁과는 다른 룰을 가진 적, 일본은 이해하기 어렵기에 예측 불가한 어려운 적이었다.

두 번째는 일본 사회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에 관한 것으로 3장과 4장이 이에 해당한다. 루스 베네딕트는 제3장에서 일본인이 가진 사회적 특징으로서 ‘알맞은 위치 갖기’라는 패턴을 제시한다. 3장의 내용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틀이라고 할 만하다. 서구사회가 오랜 역사를 통해 희생을 감수하며 구축해온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질서와 위계’를 중시하는 일본인들의 가치관에 대해 관찰한다. 제4장은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는 기점으로 보는 ‘메이지 유신’에 대해 소개하면서 메이지 유신이 어떤 식으로 전근대의 질서를 계승했는가에 주목한다.

세 번째는 일본인들의 내면과 심층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부

분으로 이 책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데 5장에서 12장까지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5장과 6장은 ‘온(恩)’과 ‘온 가에시(恩返し)’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 일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다. 7장과 8장은 ‘기리(義理)’에 관한 이야기다. 기리란 한국식으로 읽으면 ‘의리’인데, 한국어의 ‘의리’와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 특히 ‘이름에 관한 기리’는 ‘의리’보다는 명예에 가까운 말이다. 일본인들은 그것이 은혜이든 굴욕이든 반드시 되갚고자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9장은 앞서 설명한 덕목들과 조금 대조되는 덕목으로 ‘닌조(人情)’라고 읽지만, 한국어의 ‘인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람의 욕망을 허용하는 세계관이며, 목욕, 식사, 수면 등에서 극단적인 느슨함이 허용되는 동시에 유사시에 극단적인 스토이시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변 영역이다. 10장은 앞서 설명한 여러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 11장과 12장은 일본의 사회적 교육과 가정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네 번째, 마지막 13장은 해방 후에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패전 후의 일본인들을 다루고 있다. 천황의 패전 선언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미국을 환영한다. 『국화와 칼』이 ‘이중성’에 주목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모순적 태세 전환에 대한 분석이 목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화와 칼』을 되풀이해 읽다 보면 이 책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이중성 자체가 아니라, 그 이중성으로 표현된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이 어쩌면 일본인을 움직이는 힘일지 모른다. 다만 국가나 민족 단위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공부하는 데는 서로 많이 닮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 한국의 젓가락 문화는 다르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두 나라 모두 젓가락을 쓴다’고 말할 것이다.

일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근대를 이해할 수 없다. 헤르만 헤세는 ‘사람은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미워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을 응시하는 일은 우리의 미움이 정당하면 정당한 대로, 과하면 과한 대로, 우리 사회의 내면을 응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